

# 바른미래당·평화당 후보 인물난

### 지방선거=당세확장 기회

### 낮은 지지율에 영입 저조

### 현역 차출 어려워 대책 부심

6·13 지방선거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마땅한 후보들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창당 후 첫 선거인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미있는 성적을 거둬 당세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지만, 후보 기근 현상에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당 소속 의원 14명 중 9명의 지역구가 광주·전남에 몰려있는 평화당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마만큼 의미있는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 당의 독자 생존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여 승리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양 당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 많은 후보를 내보내 선거운동을 통해 정당의 존재감을 알리려 하지만, 정작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정당의 존재감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후보 찾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지역정거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군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는 박주선(광주 동남) 공동대표와 김동철(광주 광산) 원내대표, 권은희(광주 광산) 최고위원 등 현역 국회의원들이 3명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는 주승용(여수) 의원이 최근 전남지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



3당 원내대표 회동 14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서 후보군이 사라졌다.

평화당은 일단 대외적으로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 광역단체장을 모두 석권하고, 기초·광역의회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의당 시절 안철수 대표가 보수 성향인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호남의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이에 동참하지 않은 평화당 의원들을 향해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평화당에서는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이 광주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의당과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는 현역 의원 출마가 필수로 점쳐진다. 전남에서는 박지원(목포) 의원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 출

마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양 당은 중량감 있는 원외 인사를 후보군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 이렇다 할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의 고민거리다.

이는 양 당 모두 물 밑에서 인재영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영입 대상자들은 7~8%에 머무르는 당 지지율 때문에 합류를 선택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비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후보군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평화당에서는 김성환 동구청장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고, 광산구청장 선거에 바른미래당 서종진 전 부이사관이 출마표를 던졌지만 다른 구청장 선거에서는 인물난을 겪고 있다.

최권일·오광록기자 cki@kwangju.co.kr

## 이명박-강기정 11년 악연 '재조명'

### 강, 2007년 세금탈루 등 의혹 제기...소송 휘말려 1600만원 벌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MB 저격수'로 불리던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MB의 악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질긴 악연은 지난 2007년 11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시작됐다. 당시 강기정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자녀 위장취업과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 후보는 자녀 위장취업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세금도 뒤늦게 납부했다.

3년 뒤인 2010년에는 당시 강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내 김윤옥 여사가 연루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인 로비의

혹을 제기했고, 남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비자금 조성 수사에서 200억원대 기업 비리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MB정권 내내 각종 의혹과 비리를 파헤치며 '저격수'로 활약해온 강기정 의원에 대한 MB의 보복은 집요했다. 강 의원은 2008년 MB악법(마스크법, 종편악법) 저지투쟁 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이 김윤옥 여사에게 직접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벌금 90만원, 그리고 '4대강 예산 날치기' 저지 과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사퇴

### 여성 당직자 특혜공천 의혹 발목

불륜 및 여성당직자 특혜공천 의혹이 제기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충남지사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이 시간부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박 전 대변인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했고 최고위원회는 저의 소명을 모두 수용했다. 저의 당내 명예는 지켜졌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법의 심판으로 외부적 명예를 찾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6·13 선거 현장

### 광주시장 후보

### 민형배, 인공지능 대화형 정책 서비스 선보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인공지능(AI) 방식을 이용한 대화형 정책 서비스 '민이와 AI톡'(min.aitalk.kr) 서비스를 선보였다.

인공지능 대화형 정책서비스는 민 후보와 시민들간의 대화를 기계적으로 학습해 타겟층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민이 AI 톡'은 아직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연령과 지역에 맞춰 시민들에게 익숙한 카카오톡 채팅 형식으로 정책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AI 톡'은 민 후보 측이 광주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문 벤처기업에 의뢰해 개발했으며, 지방선거 후보들과 정당, 공공기관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갈 것으로 알려졌다.

### 양향자 "기술 융복합 통해 일자리 창출해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4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방문해 문화와 산업, 그리고 기술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이곳은 광주의 미래의 비전인 문화콘텐츠밸리로 조성되는 문화융합형 4차 산업혁명 핵심 거점이다"며 "진흥원을 축으로 해 첨단실감콘텐츠제작클러스터, 그리고 ICT(정보통신기술)와 문화콘텐츠 산업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 '경제와 일자리 상징'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진흥원을 ICT(정보통신기술)와 문화콘텐츠산업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 '경제와 일자리 상징'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용섭, 광주 도시재생 5대 공약 발표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4일 도시 재생 사업을 내용으로 한 'GREAT 광주, 도시재생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는 전체 읍·면·동의 70% 이상이 쇠퇴 지역으로 분류되고 재개발·재건축 44개 지역 중 28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구도심 주거환경이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후화된 도심과 산업단지를 사람·문화·일자리 중심으로 재창조해 광주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노후한 도심과 산업단지를 사람중심·문화중심·일자리 중심으로 재창조해 광주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 최영호, 금호타이어 합의안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최영호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4일 "금호타이어 문체와 관련해 정부와 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노사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납득할만한 합의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매각 반대를 주장하며, 오늘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채권단과 정부는 더블스타로의 해외매각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회사가 법정관리로 거가러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지역경제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 박혜자 "정부 개헌안 5·18 수록 환영"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박혜자 예비후보는 14일 정부의 개헌안과 관련, 논평을 내고 "6·10민주항쟁, 5·18 민주항쟁을 전문에 담아 불의한 권력을 심판할 국민의 저항권을 명시했다"며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하고 평등권 영역을 확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박 예비후보는 "광주는 촛불혁명 이후 새롭게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으로 이전과는 다른 질적 도약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국회가 뒷받침하도록 절반의 임기에 두배로 일해야 하는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덧붙였다.

### 송갑석 "MB,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송갑석 예비후보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 다스 비자금, 삼성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명예를 안다면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며 "이명박 집권 시절은 소통부재, 엄치와 도덕성 상실의 시대였다"고 평가했다. 또 "자유한국당 측이 정치보복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 구청장 후보

### 문상필 "MB 정치보복 시사 발언 잘못"



광주 북구청장에 도전하는 문상필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는 정치보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문 의원은 "광주시민들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동안 쌓인 적폐가 이전대통령의 검찰출석을 계기로 완전히 청산되길 바란다"면서 "이 전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등에서 크게 퇴보를 가져왔으며, 박근혜 국정농단세력을 탄생시킨 주범으로 반드시 검찰조사에서 그 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환 "채무제로 달성, 시대 흐름이자 과제"



재선 도전에 나서는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채 조기상환은 선거를 앞두고 발이는 즉흥적인 이벤트가 아니다"며 "행정안전부가 매년 각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해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채무제로' 달성은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자 당연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자치단체장이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빚도 갚고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다"며 "이를 두고 '정치적인 속셈' 운운하며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을 의도적으로 삭감하는 일부 의원의 행태야말로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광록기자 kroh@

## 구례,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연수원/요양(병)원 변경가능
- 대572평, 건683평, 객58, 4층건물
- 연 3억이상 순수익 가능
- 전체리모델링(5억), 관광온천지구
- 매18억(대출8억포함, 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광주에서 40분
- 대지106평, 건물42평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시세 - 1억 1000만원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매매 - 8200만원
- 문의. 010-3605-5000